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Family Communication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Empathy

1차원고접수: 2026.01.09. 수정원고접수: 2026.05.31. 최종게재결정: 2026.06.21.

한아름¹ · 강은비²

¹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초빙교수

²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Han, Ah-Reum¹

Kang, Eun-Bi¹

¹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의 15차년도(2022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중학교 2학년 1,142명 이다(남자청소년 589명, 여자청소년 553명).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가족의사소통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가족의사소통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과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의사소통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통한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의 학교적응 향상에 있어 환경적 요인으로서 가족 내 의사소통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적 요인으로 집행기능과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밝혔다. 중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행기능뿐 아니라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더불어 가족 내에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집행기능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과 가족 내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가족의사소통, 집행기능곤란, 공감, 학교적응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 effect of family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its indirect effects through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empathy. Data were drawn from the 15th wave (2022)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with a sample of 1,142 adolescents (589 boys and 553 gir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showed that family communicat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empathy independe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A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on effect was also found, indicating that family communication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through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empathy in sequence.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family communication as a key environmental factor, as well as executive function and empathy as critical individual factors, in promot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Enhancing executive function and empathy, alongside fostering open and positive family communication, may be particularly effective in supporting successful schoo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The results suggest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programs targeting adolescents'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 well as parent education programs that promote constructive family communication.

Keywords family communicati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empathy, school adjustment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강은비(Kang, Eun-Bi)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ebkang@ewha.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발달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추상적 사고와 자기조절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한편,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정서 경험의 강도가 심화된다. 이러한 발달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학습의 장을 넘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 규범 수용, 정서 조절, 사회적 역할 수행이 통합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발달 맥락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학교 환경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하는지는 발달적 성취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학업 성취에 국한되지 않고, 대인관계, 정서적 안정, 학교생활 만족도를 포괄하는 전반적 발달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이규미, 2005), 이후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성취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해진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기제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적응은 다양한 환경적 및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가정은 발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사회화 맥락으로서 청소년의 적응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특히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반응을 해석하며,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 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 이해와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자녀가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적 의사소통으로 구분되며(Barnes & Olson, 1985),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에 자유롭게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인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은 주

저하고 위축되며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처리 방식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 규범 수용, 갈등 조절과 같은 학교 맥락에서의 적응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관되게 확인된다(김소영, 박미화, 2018; 박지현, 윤혜미, 2017;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임정화, 전종설, 2012). 국내 메타분석에서도,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원재순, 김진숙, 2014). 이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상승하는 반면, 갈등형 의사소통은 적응을 저해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족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환경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족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발달 경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행동 조절과 자기관리 능력을 포함하는 복합적 발달 결과라는 점에서, 가족의사소통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가족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주로 자아존중감(박지현, 윤혜미, 2017), 자기효능감(조윤미, 이숙, 2008), 자아탄력성(정현태, 임우섭, 김용주, 2017), 자아정체감(이지민, 2009)과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해 왔으나 이러한 개인 내적 특성은 학교적응이 요구하는 행동 통제, 과제 지속, 규칙 준수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조절하는 고차원적 인지 기능인 집행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Best & Miller, 2010; Diamond, 2013).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은 주의 조절, 행동 통제, 작업기억 등을 포함하며 목표 설정과 계획, 충동 억제, 정서 및 행동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지

기능으로 학교 장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행동과 적응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집행기능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과제 지속과 충동 억제 등 자기조절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학업 수행뿐 아니라 규칙 준수, 또래 관계,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학교적응 전반이 양호하였다(김재운, 김태련, 강민주, 2021; 오윤경, 2025). 반면, 집행기능곤란이 높은 경우 충동적 행동과 규칙 위반, 학습 지속의 어려움 등 학교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Best, Miller, & Naglieri, 2011; Blair & Razza, 2007).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 중 억제통제와 주의 조절 능력은 교실 내 행동 문제 감소 및 학습 참여와 관련되며, 작업기억은 학업 수행과 문제 해결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st et al., 2011; Blair & Razza, 2007). 집행기능곤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 문제와 규칙 위반 행동이 증가하고(김민주, 하은혜, 2013), 충동적 반응과 정서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 맥락에서의 부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서영임, 2019). 특히 계획 및 조직화 능력과 행동 통제 기능이 낮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현주, 2011, 2014). 국내 중단연구에서 집행기능이 시간에 따라 학교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채혜경, 2021).

가족의사소통과 집행기능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나, 부모의 지지, 반응성, 자율성 지지와 같은 양육의 질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집행기능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됨이 보고되었다(Bernier, Carlson, Whipple, 2010; Fay-Stammbach, Hawes, & Meredith, 2014; Schroeder & Kelley, 2010). 가족의사소통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자율성 지지, 반응성, 정서적 교환과 같은 특성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을 구성하는 상호작용 맥락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가족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집행기능 발달에 중요한 환경적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 내 지지적이고 상호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조절하고 조직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집행

기능곤란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운 등, 2021). 따라서 가족 내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기조절 전략과 정보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입력으로 기능하며, 이는 집행기능곤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집행기능은 학교 맥락에서 요구되는 행동 조절과 학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족의사소통은 집행기능곤란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매개경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조절을 포함하는 사회적 적응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지적 자기조절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는 공감능력이 핵심적인 설명 변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공감(empathy)은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서적 반응과 관점수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며(Decety & Lamm, 2006), 단순한 정서 반응을 넘어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행동적 경로를 형성한다. 최근 메타분석에서도 아동·청소년의 마음이론, 공감,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Qiu et al., 2024). 공감능력이 높은 청소년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협력적이고 배려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또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교생활 전반의 적응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공감은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고, 학교 내 관계 형성과 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오은주, 남재걸, 2017; 한세영, 조연수, 유설희, 2023; Litvack-Miller, McDougall, Romney, 1997).

이러한 공감능력은 가족 내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며, 이는 공감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이명순, 김중운, 2014). 부모가 자녀의 관점수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경우 아동의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arrant, Devine, Maybery, & Fletcher, 201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이 공감능력 형성과 유의하게 관련됨이 보고되었으며(박선하, 김지현, 김정민, 2014),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개방적 의사소통은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고 욕구 지지적이고 반응적인 양육은 청소년의 관점수용과 공감적 관심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iklikowska, Duriez, & Soenens, 2011), 반면, 비난이나 통제 중심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공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승민, 2010; 이명순, 김종운, 2014). 즉 가족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서 경험과 관점수용 능력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사회화 맥락으로서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공감은 다시 대인관계 및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매개기제로 기능한다. 부모의 공감적 양육은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나래, 신나나, 201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어(이명순, 김종운, 2014), 가족 내 상호작용의 질은 공감 형성의 중요한 발달 맥락으로 작용하며,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 등을 통해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최근 연구에서는 인지적 자기조절 기능과 정서적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이 강조되며, 특히 인지적 기제가 정서적 반응의 형성과 조절에 선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공감은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서적 반응뿐 아니라 관점수용과 사회적 정보처리를 포함하는 인지적 과정이 결합된 다차원적 개념이다(Decety & Jackson, 2004; Qiu et al., 2024). 이러한 관점에서 공감은 인지적 자기조절 기능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사회 정서적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기능은 공감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적 인지 기반으로 작용한다. 집행기능은 억제 통제, 작업기억,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자기중심적 반응을 조절하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Diamond,

2013). 실제로 억제통제와 작업기억은 관점수용 및 마음이론과 관련되며(Carlson & Moses, 2001), 집행기능은 사회인지 및 공감 발달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Hughes & Ensor, 2007). 발달적 관점에서도 청소년기는 전전두엽 발달과 함께 집행기능이 급격히 향상되는 시기로(Crone, 2009), 이러한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은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의 토대를 형성한다. 즉, 집행기능은 공감 형성의 선행적 조건으로 작용하여,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이 원활할수록 공감적 이해와 정서적 반응이 보다 정교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증연구에서도 집행기능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은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집행기능곤란이 높은 경우 공감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집행기능은 공감 및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Hughes & Ensor, 2007), 국내 연구에서도 집행기능곤란이 공감능력 저하 및 또래 관계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경, 2025). 따라서 가족 의사소통은 집행기능곤란을 매개로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공감능력을 통해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경로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로는 가족환경이 인지적·정서적 발달을 통합적으로 이끄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됨을 확인하고, 집행기능과 공감이 각각 학교적응의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임을 밝혀 왔다. 그러나 가족환경, 인지적 자기조절 기능, 사회 정서적 역량을 하나의 발달적 흐름 속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특히 집행기능과 공감의 관계를 인지적 기능이 정서적 역량의 발달 기반으로 작용하는 위계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이 어떠한 인지적 기제를 토대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한하며,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발달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지적 자기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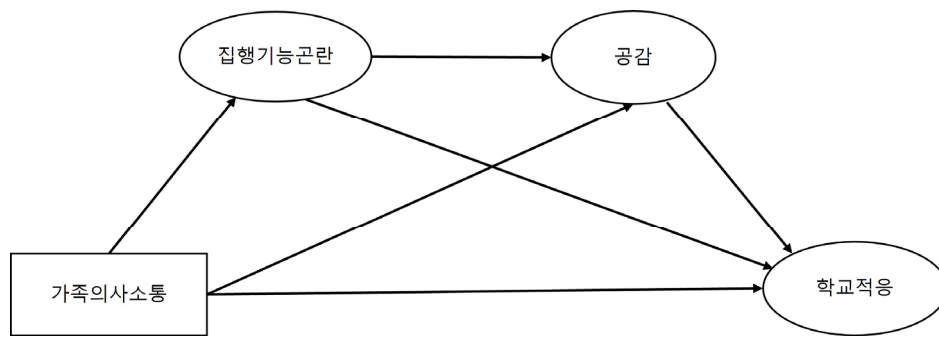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능력이 정서적·사회적 역량의 형성에 선행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효과적인 교육 및 개입 전략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적 경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가족환경과 개인 내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확장하고,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의 순차적 매개 구조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가족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가족의사소통은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5차년도(2022년)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 발달과 관련한 양육, 정책 등 미시적, 거시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여,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하는 종단연구자료로서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15차년도에 조사에 참여하고 주요 연구변인에 모두 응답한 중학교 2학년 1,142명(남자 청소년 589명, 여자청소년 553명)으로, 평균 연령은 14.3세이다.

2. 측정도구

1) 가족의사소통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가족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5)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중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에 해당하는 10개 문항을 개정한 Olson(2011)의 가족의사소통 척도(Family Communication Scale: FCS; FACES IV)를 한국형으로 타당화한 김영식 등(201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다’ 등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 ~ 자주 그렇다(5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의사소통 수준에 대해 직접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2) 집행기능곤란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청소년의 집행기능곤란을 파악하기 위하여 송현주(2014)가 타당화한 집행기능곤란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계획-조직화곤란, 행동통제곤란, 정서통제곤란, 부주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조직화 곤란에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힘들다’, 행동통제 곤란에는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정서통제곤란에는 ‘그럴 일이 아닌 데도 잘 투덜거린다’, 부주의에는 ‘내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등이 있다. 3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 ~ 자주 그렇다(3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자신의 집행기능곤란의 정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계획-조직화곤란 .87, 행동통제 곤란 .81, 정서통제곤란 .87, 부주의 .88,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3) 공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홍예영과 김유숙(2015)의 청소년 공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현적 공감에는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하는 친구가 있으면 격려해 준다’, 인지적 공감에는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정서적 공감에는 ‘친구가 슬퍼할 때면 나도 기분이 슬퍼진다’ 등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다(6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자신의 공감능력에 대해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표현적 공감 .90, 인지적 공감 .88, 정서적 공감 .87,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4) 학교적응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규미(2005)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공부에는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친구에는 ‘학교 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학교교사에는 ‘우리 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다’, 학교생활에는 ‘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자신의 학교적응 정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학교공부 .88, 학교친구 .90, 학교교사 .91, 학교생활 .88,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PSS 22.0 및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내적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가족의사소통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사소통’변인은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가족의사소통’변인은 하위요인 없이 단일 구성개념으로 측정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단일 지표를 활용하는 접근이 이론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관측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개념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모형의 간명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Bollen, 2014; Hayduk & Littvay, 2012).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변인과 관측변인들 간의 관계와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잠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다만 χ^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홍세희, 2000). NFI, TLI, CFI는 .90 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하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모형으로, .08 미만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된다(우종필, 2015).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2개의 매개변인 각각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연구변인들의 왜도의 절댓값은 3이하, 첨도의 절댓값이 10이하라는 정규성 가정의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이어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의사소통은 집행기능곤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 = -.27$, $p < .001$), 공감과 학교적응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 = .32$, $r = .49$, $p < .001$). 다음으로 집행기능곤란은 공감과 학교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각각 $r = -.17$, $r = -.34$, $p < .001$), 공감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 = .58$, $p < .00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1,142$)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														
2	-.27***	-													
3	-.21***	.83***	-												
4	-.23***	.77***	.56**	-											
5	-.22***	.70***	.41***	.44***	-										
6	-.18***	.79***	.52***	.47***	.41***	-									
7	.32***	-.17***	-.12***	-.21***	-.05	-.15***	-								
8	.31***	-.15***	-.12***	-.16***	-.06*	-.13***	.92***	-							
9	.26***	-.21***	-.16***	-.25***	-.07*	-.17***	.79***	.60***	-						
10	.24***	-.08**	-.03	-.15***	-.01	-.09**	.83***	.64***	.52***	-					
11	.49***	-.34***	-.31***	-.33***	-.23***	-.20***	.58***	.56***	.47***	.44***	-				
12	.35***	-.40***	-.40***	-.34***	-.25***	-.22***	.35***	.35***	.31***	.23***	.72***	-			
13	.38***	-.20***	-.17***	-.23***	-.15***	-.10***	.52***	.47***	.48***	.39***	.77***	.41***	-		
14	.36***	-.20***	-.19***	-.17***	-.14***	-.14***	.40***	.40***	.28***	.33***	.80***	.42***	.45***	-	
15	.43***	-.29***	-.22***	-.31***	-.20***	-.20***	.53***	.52***	.41***	.40***	.82***	.50***	.54***	.52***	-
M	3.93	4.20	1.72	1.30	1.47	1.50	1.50	4.08	4.44	4.16	3.83	3.58	4.09	3.61	3.99
SD	.67	.83	.44	.31	.45	.45	.32	.91	.85	1.06	.51	.66	.63	.74	.59
왜도	-.55	-.51	.34	1.27	1.07	.93	.61	-.63	-.55	-.47	-.31	-.34	-.87	-.27	-.60
첨도	.88	1.00	-.55	1.20	.73	.32	-.18	.94	.83	.26	.60	.58	1.55	.02	1.38

주. 1. 가족의사소통 2. 집행기능곤란 총합 3. 계획-조직화곤란 4. 행동통제곤란 5. 정서통제곤란 6. 부주의 7. 공감 총합 8. 표현적공감 9. 인지적공감 10. 정서적공감 11. 학교적응 총합 12. 학교공부 13. 학교친구 14. 학교교사 15. 학교생활.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연구변인들의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관측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반영되어 구성되어 있음이 검증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란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적합도 지수

는 $\chi^2 = 301.286(p < .001, df = 49)$, NFI = .938, TLI = .929, CFI = .947, RMSEA = .067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이에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의사소통은 집행기능곤란에 부적 영향을($\beta = -.31, p < .001$), 공감능력($\beta = .32, p < .001$)과 학교적응에는 정적 영향($\beta = .28, p < .001$)을 미쳤다. 즉, 개방적인 가족의사소통 수준이 높을 때 청소년의 집행기능의 곤란 수준을 감소시키고, 공감능력과 학교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행기능곤란은 공감능력($\beta = -.12, p < .001$)과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beta = -.24, p < .001$)을 미쳤다. 즉, 청소년기의 집행기능에서의 어려움은 공감능력과 학교적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감능력은 학교적응에 정적 영향($\beta = .58, p < .001$)을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NFI	TLI	CFI	RMSEA
293.082***	41	.935	.924	.944	.073

*** $p < .001$.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경로	B	β	SE	C.R
집행기능곤란 → 계획-조직화 곤란	1.00	.75		
집행기능곤란 → 행동통제 곤란	.69	.74	.03	20.69***
집행기능곤란 → 정서통제 곤란	.79	.58	.05	17.03***
집행기능곤란 → 부주의	.89	.66	.05	19.05***
공감 → 표현적 공감	1.00	.87		
공감 → 인지적 공감	.83	.70	.04	23.58***
공감 → 정서적 공감	.97	.73	.04	24.60***
학교적응 → 학교친구	1.00	.69		
학교적응 → 학교교사	1.08	.64	.06	18.72***
학교적응 → 학교공부	.95	.63	.05	18.54***
학교적응 → 학교생활	1.08	.80	.05	22.15***

*** $p < .001$.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NFI	TLI	CFI	RMSEA
구조모형	301.286***	49	.938	.929	.947	.067

*** $p < .001$.

미쳐, 공감능력이 높을 때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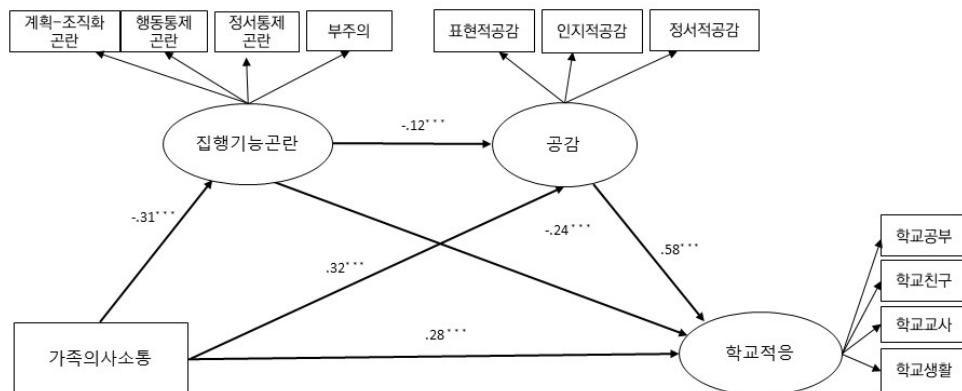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란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하였다(표 6 참조). 이에 가족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매개변인을 포함하므로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팬텀변인을 설

정하였으며,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표준화계수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비표준화계수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김성은, 정규형, 허영희, 우종훈, 김과현, 2018). 가족의사소통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곤란의 간접효과($B = .05, p < .01$)와 공감의 간접효과($B = .12, p < .01$)가 유의하였으며,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의 순차적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B = .01, p < .01$)(표 7 참조). 즉, 개방적인 가족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청소년기의 집행기능곤란을 감소시켰으며, 낮은

표 5.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잠재변인간 경로	<i>B</i>	β	<i>SE</i>	<i>C.R</i>
가족의사소통 → 집행기능곤란	-.15	-.31	.02	-9.21***
가족의사소통 → 공감	.37	.32	.04	9.61***
가족의사소통 → 학교적응	.18	.28	.02	9.72***
집행기능곤란 → 공감	-.29	-.12	.09	-3.31***
집행기능곤란 → 학교적응	-.31	-.24	.04	-7.76***
공감 → 학교적응	.32	.58	.02	16.02***

*** $p < .001$.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표 6.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의사소통 → 학교적응	.28**	.28**	.55**
집행기능곤란 → 학교적응	-.24**	-.07**	-.31**
공감 → 학교적응	.58**	-	.58**
가족의사소통 → 공감	.32**	.04**	.35**
집행기능곤란 → 공감	-.12**	-	-.12**
가족의사소통 → 집행기능곤란	-.31**	-	-.31**

** $p < .01$.

표 7. 간접효과의 유의성

경로	B	95% CI
가족의사소통 → 집행기능곤란 → 학교적응	.05**	.05 ~ .06
가족의사소통 → 공감 → 학교적응	.12**	.09 ~ .15
가족의사소통 → 집행기능곤란 → 공감 → 학교적응	.01**	.01 ~ .02

** $p < .01$.

수준의 집행기능곤란은 공감능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에서 부모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고(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대화를 지향하고 순응적·개방적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학교적응이 높았다는 선행연구들(김소영, 박미화, 2018; 박지현, 윤혜미, 2017; 임정화, 전종설, 2012)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가족 내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경험이 가족 이외의 환경에서의 적응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에 비해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학교의 분위기, 학업량의 증가로 인해 학업성취가 강조되거나(변상민, 신중휘, 양준혁, 2018; Wang et al., 2025),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는 학업성취만을 지표로 삼지 않는다. 학교환경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가, 학교의 규범과 질서 등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조절하고 규칙을 준수하는가, 또래와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가도 학교적응에서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이규미, 2005; Kaynak & Kan, 2024). 학교적응과 관련된 부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학업적 지원이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장은아, 정혜원, 2023). 즉 가족 내에서 원만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자녀들은 자신의 학업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나누면서 부모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고 필요한 학업적 지원을 받으며 학업에 몰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기에는 또래관계에서 다양한 심리적 적응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Rueger, Malecki, Demaray, 2010; Sentse, Lindenberg, Omvlee, Ormel, & Veenstra, 2010). 그러나 가족 내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정서적 안정감과 높은 자아존중감(Runcan, Constantineanu, Ielics, & Popa, 2012)은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상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은 자녀가 맥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며(Dale, Tosto, Hayiou-Thomas, & Plomin, 2015; Schrodtt et al., 2009), 이러한 의사소통의 기술을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사용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나아가 학교생활에서도 잘 적응할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란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과 상호작용이 집행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Bernier et al., 2010; Fay-Stammbach et al., 2014; Schroeder & Kelley, 2010), 가족 내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집행기능을 향상시키고(임동선 등, 2022), 나아가 발달된 집행기능이 학교적응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들(채혜경, 2021; Best et

al., 2011; Blair & Razza, 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지적이고 상호적인 의사소통 경험이 청소년의 주의 조절, 정서 조절 및 행동 통제와 같은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집행기능곤란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김재운 등, 2021; 임동선 등, 2022). 즉, 가족 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애정적인 양육을 보이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의사소통 환경이 형성되면, 이러한 정서적 안정을 기반으로 자기를 조절하고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한 집행기능이 발달될 수 있다(Schroeder & Kelley, 2010).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한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도 적절하게 정서를 조절하고 행동함으로써 또래와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학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적응 향상을 위해 집행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의사소통이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가족 내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고(박선하 등, 2014; 이명순, 김중운, 2014; Farrant et al., 2012), 공감능력이 학교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최나래, 신나나, 2014)을 뒷받침한다. 이는 공감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타인의 관점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과 양육을 제공할 때 발달해 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한 자녀들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능력, 풍부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증진되는 것으로도 보고된다(유경진, 김응자, 2019).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상호작용하며 토론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대화지향적 의사소통(conversation orientation)을 할 때, 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고 존중받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Abdullah & Salim,

2020; Koerner & Fitzpatrick, 2002)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감능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자녀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경험 속에서 공감능력이 발달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학교생활에서 또래와 교사와 적응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며 학교적응의 수준을 높였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사소통이 순차적으로 집행기능과 공감능력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앞서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집행기능곤란을 감소시키고(김재운 등, 2021), 집행기능에 어려움을 보일수록 공감능력이 감소하며(이민경, 2025), 결과적으로 공감능력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오은주, 남재걸, 2017)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앞서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란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기능과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집행기능곤란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과 행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집행기능이 요구된다. 집행기능은 주의와 행동을 유지하며 주어진 상황 및 타인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하며, 자신의 관점을 억제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주의를 유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을 포함하는 능력(Laureys, De Waelle, Barendse, Lenoir, & Deconinck, 2022)으로,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감능력이 발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초기 집행기능곤란이 인지적 공감을 저해하고, 이러한 공감의 차이가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며(이민경, 2025),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과 공감능력은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성숙이라는 신경학적 기제를 공유한다는 선행연구들(Aharon-Peretz, & Perry, 2009; Decety & Lamm, 2006; Shamay-Tsoory et al., 2009)은 집행기능의 발달이 공감능력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중매개경로는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가족 내 상호작용을 출발점으로 집행기능과 공감능력이라는 인지적·정서적 발달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발달적 산물임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가족 내에서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과 공감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공감이 학교적응을 높인다는 결과로 미루어볼 때, 청소년기 가정에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가족 및 부모변인과 학교적응 간의 직접적인 관계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수로 집행기능, 공감 또한 관련 변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이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에 있어서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고 변인 간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인지적 조절능력과 공감능력의 발달을 촉진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인 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입에 있어 단순한 양육 태도 교육을 넘어, 청소년의 사고와 감정을 존중하고 문제상황을 함께 논의하는 개방적 의사소통 기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켜, 청소년의 인지적 자기조절과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을 동시에 지원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의사소통과 집행기능곤란보다는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가족 내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감이 핵심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공감은 또래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의 질, 친사회적 행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Qiu, Gao, Zhu, Li, & Jiang, 2024),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유영숙, 하창순, 2016; Schipper & Petermann, 2013), 학업성취, 학습태도 등의 학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도 보고되고 있다(Feshbach & Feshbach, 1987; Zorza, Marino, & Mesas, 2015).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정서와 행동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문제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여 학교생활 내 대인관계와 학업활동에서도 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청소년 자녀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들이 보다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은 집행기능이라는 인지적 토대를 바탕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공감 교육 역시 정서적 민감성 등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관점 수용, 상황 해석, 자기조절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여 주관성의 개입,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자를 통한 평가나 실험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공감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타인의 정서와 동일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얼굴표정 읽기 과제와 얼굴표정에 대한 안면모방 과제(문은옥, 김혜리, 천영운, 김태화, 최현옥, 2014)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집행기능의 경우에도 스트룹과제, 위스콘신 카드분류과제 등을 활용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횡단적 연구라는 점에서 가족의사소통 및 집행기능, 공감의 종단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설명하는 인지적 기제로 집행기능곤란에 주목하고자 한다. 집행기능은 전두엽의 점진적인 발달과 함께 학령기 후기부터 청소년 시기에 급속도로 발달하고 성숙해진다는 점(Anderson, 2002; Crone, 2009),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보인다는 점(Keijsers & Poulin, 2013)을 고려하여 학령기 후기 시기부터 중

학교 시기까지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본다면, 중학교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장기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가족의사소통과 더불어 청소년 개인의 특성으로 집행기능곤란과 공감능력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통합적인 경로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을 증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개인의 문제 행동이나 학업 능력, 또래관계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 등과 같이 직접적인 학교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과 인지, 정서적 발달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입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족 내에서 안정적인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조절능력과 공감능력 향상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지적·정서적 능력의 강화의 필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족 내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부모교육의 필요성뿐 아니라, 이러한 가족 내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의 집행기능과 공감능력 또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가족 내의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과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 그리고 학교적응이라는 사회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주, 하은혜 (2013). 청소년의 ADHD 증상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313-330.
<https://doi.org/10.15842/kjcp.2013.32.2.003>
- 김성은, 정규형, 허영희, 우종훈, 김과현 (2018). 한 번에 통과하는 논문: AMOS 구조방정식 활용과 SPSS 고급분석. 서울: 한빛아카데미.
- 김소영, 박미화 (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7(1), 35-50.
<https://doi.org/10.22839/adp.2018.7.1.35>
- 김영식, 선우성, 김병수, 박훈기, 옥선화, 차동혁 (2012). FACES IV의 가족의사소통 척도(FCS)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41-258.
- 김재윤, 김태련, 강민주 (2021).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자녀 상호작용 경험, 집행기능 곤란, 언어능력의 구조적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42(2), 305-314. <https://doi.org/10.5723/kjcs.2021.42.2.305>
- 류승민 (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공감능력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옥, 김혜리, 천영운, 김태화, 최현옥 (2014). 품행문제 청소년의 공감손상: 인지공감의 손상인가 정서공감의 손상인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27-146.
- 박선하, 김지현, 김정민 (20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4), 225-238.
- 박지현, 윤혜미 (2017). 가족의사소통유형이 남·여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9, 149-175.
- 변상민, 신중휘, 양준혁 (2018).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시간이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9(4), 913-944.
<https://doi.org/10.15753/aje.2018.12.19.4.913>
- 서영임 (2019). 청소년의 주의집중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행동통제의 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상담연구*, 1(1), 31-42.
- 송현주 (2011).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과 학교 적응.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2), 31-39.
- 송현주 (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의 학교 적응에 대한 변별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6(2), 39-48.
- 오윤경 (2025). 모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끈기, 학교적응의 순차적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3(3), 1-10. <https://doi.org/10.7466/JFBL.2025.43.3.1>
- 오은주, 남재걸 (2017). 고등학생의 사회불안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7), 105-128.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7.105>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레아카데미.
- 원재순, 김진숙 (2014).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2(3), 123-135.
- 유경진, 김응자 (2019).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6(2), 53-65.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유영숙, 하창순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행동 통제와 자기통제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197-216.
<https://doi.org/10.15703/kjc.17.2.201604.197>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명순, 김종운 (2014). 아동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335-356.
<https://doi.org/10.35151/kyci.2014.22.1.014>
- 이민경 (2025). 청소년 초기 집행기능 곤란, 인지적 공감, 또래 애착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된 조절 효과. *교육발전*, 45(1), 245-264.
<https://doi.org/10.34245/jed.45.1.245>
- 이지민 (200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021-1033.
- 임동선, 김신영, 송혜선, 이하은 (202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언어능력 및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5(1), 27-54. <https://doi.org/10.35574/kjdp.2022.3.35.1.27>
- 임정화, 전종설 (201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169-190.
- 장은아, 정혜원 (2023). 중학생의 학교적응 변화양상 및 주요 예측변인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24(3), 587-611.
<https://doi.org/10.15753/aje.2023.9.24.3.587>
- 정현태, 임우섭, 김용주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관계, 담임교사의 의사소통,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관계. *미래교육학연구*, 30(1), 1-23.
- 조윤미, 이숙 (2008).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 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641-658.
- 채혜경 (2021). 아동의 행복감,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간의 종단적 관계. *인문사회* 21, 12(5), 1617-1626.
<http://doi.org/10.22143/HSS21.12.5.114>
- 최나래, 신나나 (2014).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4), 91-118.
- 한세영, 조연수, 유설희 (2023).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30(4), 185-196.
<https://doi.org/10.15284/kjhd.2023.30.4.185>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예영, 김유숙 (2015). 청소년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59-183.
- Abdullah, S. H., & Salim, R. M. A. (2020). Parenting style and empathy in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HUMANITAS: Indonesian Psychological Journal*, 17(1), 34-45.
<https://doi.org/10.26555/humanitas.v17i1.13126>
- Anderson, P. (2002).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EF) during childhood. *Child Neuropsychology*, 8(2), 71-82. <https://doi.org/10.1076/chin.8.2.71.8724>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2), 438-447. <https://doi.org/10.2307/1129732>
- Bernier, A., Carlson, S. M., & Whipple, N. (2010). From external regulation to self-regulation: Early parenting precursors of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81(1), 326-339.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9.01397.x>
- Best, J. R., & Miller, P. H. (2010).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executive function. *Child Development*, 81(6), 1641-1660.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0.01499.x>
- Best, J. R., Miller, P. H., & Naglieri, J. A. (2011). Relations between executive fun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from ages 5 to 17 in a large,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4), 327-336. <https://doi.org/10.1016/j.lindif.2011.01.007>
- Blair, C., & Razza, R. P. (2007). Relating effortful control, executive function, and false belief understanding to emerging math and literacy ability in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8(2), 647-663.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7.01019.x>
- Bollen, K. A. (2014).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arlson, S. M., & Moses, L. J.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inhibitory control and children's theory of mind. *Child Development*, 72(4), 1032-1053.
<https://doi.org/10.1111/1467-8624.00333>
- Crone, E. A. (2009). Executive functions in adolescence: inferences from brain and behavior. *Developmental Science*, 12(6), 825-830.
<https://doi.org/10.1111/j.1467-7687.2009.00918.x>
- Dale, P. S., Tosto, M. G., Hayiou-Thomas, M. E., & Plomin, R. (2015). Why does parental language input style predict child language development? A twin study of gene-environment correl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57, 106-117.
<https://doi.org/10.1016/j.jcomdis.2015.07.004>
- Decety, J., & Jackson, P. L. (2004). The functional architecture of human empathy. *Behavioral and Cognitive Neuroscience Reviews*, 3(2), 71-100.

- <https://doi.org/10.1177/1534582304267187>
- Decety, J., & Lamm, C. (2006). Human empathy through the lens of social neuroscience.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6(1), 1146-1163.
<https://doi.org/10.1100/tsw.2006.221>
- Diamond, A. (2013). Executive func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1), 135-168.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113011-143750>
- Farrant, B. M., Devine, T. A., Maybery, M. T., & Fletcher, J. (2012). Empathy, perspective taking and prosocial behaviour: The importance of parenting practice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1(2), 175-188.
<https://doi.org/10.1002/icd.740>
- Fay-Stammach, T., Hawes, D. J., & Meredith, P. (2014). Parenting influences on executive function in early childhood: A review.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8(4), 258-264. <https://doi.org/10.1111/cdep.12095>
- Feshbach, N. D., & Feshbach, S. (1987). Affective processes and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58(5), 1335-1347. <https://doi.org/10.2307/1130625>
- Hayduk, L. A., & Littvay, L. (2012). Should researchers use single indicators, best indicators, or multiple indicator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2(1), 159.
<https://doi.org/10.1186/1471-2288-12-159>
- Hughes, C., & Ensor, R. (2007). Executive function and theory of mind: Predictive relations from ages 2 to 4.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447-1459.
<https://doi.org/10.1037/0012-1649.43.6.1447>
- Kaynak, S., & Kan, A. (2024). School adjustment scale for high school student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61(11), 4063-4079.
<https://doi.org/10.1002/pits.23269>
- Keijsers, L., & Poulin, F. (2013). Developmental changes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throughout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9(12), 2301.
<https://doi.org/10.1037/a0032217>
- Kline, R. B. (2015). The mediation myth.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7(4), 202-213.
<https://doi.org/10.1080/01973533.2015.1049349>
- Koerner, A. F., & Fitzpatrick, M. A. (2002). Understanding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family functioning: The roles of conversation orientation and conformity orientation.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6(1), 36-65.
<https://doi.org/10.1080/23808985.2002.11679010>
- Laureys, F., De Waelle, S., Barendse, M. T., Lenoir, M., & Deconinck, F. J. (2022). The factor structure of executive func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telligence*, 90, 101600. <https://doi.org/10.1016/j.intell.2021.101600>
- Litvack-Miller, W., McDougall, D., & Romney, D. M. (1997). The structure of empathy during middle childhood and its relationship to prosocial behavior.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3(3), 303-324.
- Miklikowska, M., Duriez, B., & Soenens, B. (2011). Family roots of empathy-related characteristics: the role of perceived maternal and paternal need support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7(5), 1342.
<https://doi.org/10.1037/a0024726>
- Olson, D. H. (2011).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Validation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7(1), 64-80.
<https://doi.org/10.1111/j.1752-0606.2009.00175.x>
- Qiu, X., Gao, M., Zhu, H., Li, W., & Jiang, R. (2024). Theory of mind,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 A meta-analysis. *Current Psychology*, 43(22), 19690-19707.
<https://doi.org/10.1007/s12144-024-05762-7>
- Rueger, S. Y., Malecki, C. K., & Demaray, M. K. (2010).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sourc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Comparisons across gende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 47-61.
<https://doi.org/10.1007/s10964-008-9368-6>
- Runcan, P. L., Constantineanu, C., Ielics, B., & Popa, D. (2012).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the parent-child interactio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46, 904-908. <https://doi.org/10.1016/j.sbspro.2012.05.221>
- Schipper, M., & Petermann, F. (2013). Relating empathy and emotion regulation: Do deficits in empathy trigger emotion dysregulation? *Social Neuroscience*, 8(1), 101-107. <https://doi.org/10.1080/17470919.2012.761650>
- Schrodt, P., Ledbetter, A. M., Jernberg, K. A., Larson, L., Brown, N., & Glonek, K. (2009).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s mediator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6(6-7), 853-874.
<https://doi.org/10.1177/0265407509345649>
- Schroeder, V. M., & Kelley, M. L. (2010).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s related to executive functioning in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0), 1285-1298.
<https://doi.org/10.1080/03004430902981512>
- Sentse, M., Lindenberg, S., Omvlee, A., Ormel, J., & Veenstra, R. (2010). Rejection and acceptance across contexts: Parents and peers as risks and buffers for early adolescent psychopathology. The TRAILS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1), 119-130.

- <https://doi.org/10.1007/s10802-009-9351-z>
- Shamay-Tsoory, S. G., Aharon-Peretz, J., & Perry, D. (2009). Two systems for empathy: A double dissociation between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in inferior frontal gyrus versus ventromedial prefrontal lesions. *Brain*, 132(3), 617-627. <https://doi.org/10.1093/brain/awn279>
- Wang, J., Wang, Z., Yang, Y., Wang, T., Lin, H., Zhang, W., Chen, X., & Fu, C. (2025). Academic burden and emotion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97(4), 989-1001. <https://doi.org/10.1002/jad.12471>
- Zorza, J. P., Marino, J., & Mesas, A. A. (2015). The influence of effortful control and empathy on perception of school climat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30(4), 457-472. <https://doi.org/10.1007/s10212-015-0261-x>